



KOCHAM ECONOMIC REPORT

제 2013-30 호

2013년 4월 23일(화)

□ 미국 경제 동향

- 1) 2월중 주택가격 전월비 큰 폭 상승
- 2) 3월중 기존 주택매매건수 하락, 반면 신규주택 판매는 예상 상회
- 3) 미국, 7월중 새로운 GDP 계산법 도입 예정

□ 해외 경제 동향

- 1) EU, 미국의 자국 은행 보호주의 비판
- 2) 유로존, 서비스 및 제조업 생산 15개월 연속 위축
- 3) S&P, 일본 신용 강등 가능성 경고

□ 산업·시장 동향

- 1) WSJ, 애플이 정체성 위기에 직면했다고 지적
- 2) 애플, 팍스콘 제조 아이폰 500만대 반품

□ 미국 경제 동향

1) 2월중 주택가격 전월비 큰 폭 상승

- 지난 4월23일(현지시간) 미연방주택금융청(FHFA)은 2월중 주택가격이 연율 기준 전월비 7.1% 상승했다고 발표
- 전문가들은 주택 물량 수급 부족으로 인해 주택 구입 가격이 상승세가 확인해 진 것으로 분석,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
 - 고용 지표 개선, 사상 최저의 금리 등으로 인해 주택 구매 수요를 주도
 - 또한 시중에 공급된 부동산 물량이 제한된 점도 주택가격 상승을 일조

2) 3월중 기존 주택매매건수 하락, 반면 신규주택 판매는 예상 상회

- 지난 4월22일(현지시간) 미국부동산중개인협회(NAR)는 지난 3월중 기존 주택 매매건수가 전월비 0.6% 하락(연율기준)한 492만 건을 기록했다고 발표
 - 이는 블룸버그통신 집계 시장 전망치 500만 건을 하회하는 수준
 - 주택 판매 중간 가격은 18만4,300달러로 전년동기비 11.8% 증가, 이는 2005년 이후 최대 상승폭
- 특히 고가 주택에 대한 수요가 강세를 나타냄
 - 10만 달러 이하의 기존 주택 매매건수는 전년동기 대비 16% 감소한 반면, 25만~50만 달러 기존 주택 매매건수는 22% 증가
- 한편, 지난 4월23일(현지시간) 블룸버그통신은 3월중 신규주택판매가 1.5% 증가(연율 기준)한 41만7천 건을 기록했다고 보도

3) 미국, 7월중 새로운 GDP 계산법 도입 예정

- 지난 4월21일(현지시간) 파이낸셜타임스(FT)는 미국이 R&D와 영화 로열티 등 21세기 항목을 GDP에 편입시키는 새로운 방식을 7월부터 도입할 예정이라고 보도
 - 미상무부는 지금 경제 역사를 새로 쓰고 있다며, 이번 GDP 산정방식의 변화는 1999년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GDP 계정에 포함시킨 이후 가장 극적인 변화가 될 것이라고 발표

- 새로운 GDP 산정방식으로 미 경제 규모가 3% 늘어나는 것은 그동안 GDP에 포함되지 않았던 항목들이 새로 편입되기 때문
 - 지금까지는 애플의 아이패드처럼 기업들이 최종적으로 생산한 제품만 GDP 산정에 반영됐을 뿐, 이를 만들기 위해 투입된 R&D 투자액은 비용으로 처리돼 GDP에 포함되지 않았음
- FT는 미국의 GDP 산정방식 변화는 연준(FRB)의 물가상승률 산정은 물론 기업실적을 비롯한 다방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

□ 해외 경제 동향

1) EU, 미국의 자국 은행 보호주의 비판

- 지난 4월23일(현지시간) EU 역내시장·서비스 담당 바르니에 위원은 버냉키 연준(FRB) 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외국계 은행의 미 지사에 더 높은 자본비율을 요구한 연준(FRB)의 계획이 미 은행에 대한 보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
 - 바르니에 위원은 연준(FRB)의 이번 계획이 과거 미정책에서 급진적으로 떠난 것이며 세계 경제 회복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
 - 그는 이로 인해 촉발된 보복이 전 세계 은행 시장의 공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밝히며 규제 이행을 조정하라고 요구
- 한편 연준(FRB)은 외국 은행들이 지난 몇 년에 걸쳐 불안정한 단기 도매 자금시장 의존도를 급격히 늘려온 데 따른 새로운 리스크들을 고려한 선별적 조정을 제안한 것이라고 답변

2) 유로존, 서비스 및 제조업 생산 15개월 연속 위축

- 지난 4월23일(현지시간) 영국 시장조사기관인 마르킷트이코노믹스는 유로존의 4월중 종합구매관리자지수(PMI)가 전달과 동일한 46.5를 기록했다고 발표
 - 종합 PMI는 제조업과 서비스를 합친 개념으로 이에따라 유로존은 15개월 연속 위축세를 기록
- 한편, 4월 서비스 PMI는 46.6을 기록, 3월 46.4 대비 소폭 상승한 반면, 제조업 PMI는 지난달 46.8에서 이번달 46.5로 소폭 감소

3) S&P, 일본 신용 강등 가능성 경고

- 지난 4월22일(현지시간) S&P는 아베 정권이 아베노믹스를 구성하는 양적완화, 재정지출, 성장전략 등 세 가지 화살을 모두 성공적으로 쏘아 올릴 수 있을지 여부를 잠재 리스크로 지목
 - 특히 아베 정권 초기부터 아베노믹스의 최대 관건으로 지목돼온 마지막 화살인 장기적 성장전략의 성패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
- 아울러 S&P는 일본경제 회생을 위한 선순환의 첫 고리가 될 것으로 기대했던 엔저효과도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
 - 지난 2011년 대지진 이후 에너지 수입이 급증, 무역적자 구조가 고착된 일본경제에서 엔화약세는 수출증대 못지않게 수입증대와 에너지 비용 증대라는 부담요인이 되기 때문

□ 산업·시장 동향

1) WSJ, 애플이 정체성 위기에 직면했다고 지적

- 지난 4월22일(현지시간) 월스트리트저널(WSJ)은 애플이 정체성 위기에 직면했으며, 최근 주가가 급락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
 - WSJ은 애플이 하드웨어 업체인지, 소프트웨어 업체인지가 불분명해 주가 전망도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
 - 미국 뉴욕증시에서 애플 주가는 지난주 2011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400달러 밑으로 추락한바 있음
- 한편, WSJ는 월가에서 애플의 기업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한 의문이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
 - 애플은 원래 컴퓨터를 만드는 하드웨어 업체로 여겨졌는데, 하드웨어만으로는 미래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
 - 애플이 지금은 아이폰과 아이패드로 승승장구하고 있지만, 소비자들의 취향은 빠르게 변하기 마련이고 제품 경쟁도 치열해 애플의 입지는 언젠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

2) 애플, 폭스콘 제조 아이폰 500만대 반품 조치

- 지난 4월21일(현지시간) 중국비즈니스저널은 애플 제품을 위탁 생산하는 폭스콘이 불량 아이폰 800만대를 애플로부터 반품 받아 최대 2억5,680만 달러에 이르는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됐다고 보도
 - 애플은 지난 3월15일(현지시간) 제품 외관과 기능에 문제를 발견, 500만대의 아이폰을 폭스콘에 반품한 것으로 알려짐
 - 한편, 지금까지 애플이 불량을 이유로 돌려보낸 아이폰은 최대 800만대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짐
- 이에따라 폭스콘은 이번 반품사태로 다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16억위안의 추가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으로 추산됨
 - 이는 폭스콘의 애플 기기 위탁 사업부인 iDPBG(integrated Digital Product Business Group)가 지난해 벌어들인 순이익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
- 한편 중국비즈니스저널은 폭스콘이 과거에는 품질 관리를 엄격히 했지만, 지난 2010년 6월 과도한 노동 강도에 근로자들이 자살, 잇단 파업등으로 품질 관리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고 지적